

다문화여성이 의망을

2017년 가을호 No.132

www.womenfund.or.kr

기획

다문화여성이 사는 법

이슈와현장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

민양운 님의 생활단식 이야기

만나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집 마련해

주고 싶은 사장님

가을을 남기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

가을이 되면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추억에 잠기게 되고, 낙엽만 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을을 탄다는 말에 실감을 더 하게 된다. 이럴 때 패티김이 부른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주는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가을을 더욱 진하게 타게 된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다.”

이처럼 가을을 타는 마음은 떠난 사람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갖는 것이기에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 불과했음을 불현듯 깨닫게 하는 것도 가을을 접하면서다. 왜 떠나보냈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마치 내가 죄인인 듯한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잘 보냈다, 내가 결정한 것인데 뭐, 떠난 네가 보이지 하는 당당함도 살짝 갖게 된다.

그렇다. 가을을 타지만 말고, 가을을 태우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감정과 정서를 이성과 사고로 때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다. 가을을 한번 태워보면서 가을을 남기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찬찬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살아오면서 나만 귀하고 소중했다고 여겼던 이기심들, 내 아이만을 위하여 남의 아이 못하도록 한 지극한 경쟁심들, 사노라 정신없이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가족, 친구들을 등한시했던 무관심들, 사람보다 물질과 돈과 명예, 권력을 더 탐했던 욕심들, 내 몸뚱아

리 하나 간수 못한 채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놓쳐버린 건강과 세월들, 등등을 목록으로 만들어 정리해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가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남은 생애 속에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남기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보내고, 남겨야 할 것들은 역시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떠나보낸 자리에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포용과 나눔을 채워 넣는 이 가을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 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 줘라”는 애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유언은 그래서 가을에 더욱 감동을 더해 준다. **W**



조흥식
한국여성재단 이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딸들에게 희망을 2017년 가을호 No.132

이지영, 홍용표 님 가족이 지난 9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아내의 모국이자 아이의 외가인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사진: 윤강수 작가)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Contents

사립문

- 2 가을을 남기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
조흥식 한국여성재단 이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 | 다문화여성이 사는 법

- 4 10년 만에 찍은 가족사진_폰레우 미네아
- 6 엄마와 두 딸,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도록_정혜은
- 8 함께 어울리는 것, 다문화의 의미 전하고파_전춘화

이슈와 현장

- 10 민양운 님의 생활단식이야기_50+인생, 삶을 리셋하다
- 12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_서민(단국대학교 교수)
남혜연(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 14 직원들에게 집 마련해주고 싶은 사장님_장유경 큐비엠 대표

여성단체와 함께 댄다

- 16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_이주분야, 더 나은 인권상담을 위하여

재단소식

- 18 재단활동 2017년 7~9월
- 20 기부자명단 2017년 7~9월
- 22 수입과 지출 2017년 1~9월

- 23 창립18주년기념 후원의밤 나눔과 평등을 위하여 딸들에게 희망을

기획

다문화여성이 사는 법

결혼으로 한국에 온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 다문화여성으로, 일 가정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으로, 다르지만 여느 여성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이주여성들의 하루를 소개한다.

10년 만에 찍은 가족사진

폰레우 미네아 님은 올해 서른한 살이 되었다. 한국에 온지 딱 10년째다. 낯선 한국의 풍경 속에서 눈 내리는 한국의 겨울은 마냥 신기했다고 추억했다. 한 여름에 먹는 빙수 맛있까 궁금해하며 내리는 눈을 향해 입을 벌리기도 했다.

서툰 한국어로 그는 기억나는 순간순간을 이야기했다. 드라마로 본 한국은 그가 가고 싶은 나라였다고 했다. 그는 용기 있게 한국을 선택했지만 한국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연이은 임신과 출산으로 그는 어느덧 세 딸을 둔 엄마가 되었고 남들처럼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히 부쳐드리지 못했다. 오히려 남편의 벌이로는 도저히 꾸려나갈 수 없어 생활비라도 벌자며 빨래방 일을 시작했다.

그 사이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 아버지의 병환도 엄마가 알려주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아버지는 절대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제가 큰딸인데 너무 속





상했어요. 병원비를 부쳐드리고서도 못가 본 고향을 10년 만에 갔죠.” 이번 2017년 9월 마침내 한국여성재단의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운 고향에서 부모님과 가족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는 유독 손녀들을 아껴주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편이고 평소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하시는 분인데도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고 챙겨주고 헤어질때는 아쉬움에 볼썽부스름한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다. 남편 역시 그 모습을 보고 2년 후에 다시 오자고 약속해 주었다.

“아이 낳고 키우느라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 형편이어서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곳에 가서 일하려면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 방문 때 막내 여동생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세 살 때 헤어졌거든요. 제가 넉넉해지면 그 아이도 한국에 데려와 공부도 시키고 싶어요.” 고향에 다녀온 후 그는 더 단단해진듯하다. 2년 후에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아이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기 위해, 어린 동생을 데려오기 위해 그는 새로운 꿈으로 바뀐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10년 전 처음 한국의 낯선 환경, 낯선 언어에 둘러싸여 있을 때 당장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한다. 그때 노래방에서 노래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다며 그때 생각이 났는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오랜만에 그때 생각이 나서 하마터면 울음이 터질 뻔 했어요.”

밥상위에 놓은 계장을 직접 손으로 발라 맛나게 점심을 먹은 후, 그는 한국어공부를 위해 발길을 돌렸다.

W

글 백진영(나눔기획팀)

기획

다문화여성이 사는 법 2

엄마와 두 딸,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대구 사는 정혜은 님은 하루 24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일요일 오후 두 딸과 함께 카페에서 만난 그는 분주한 기색이 역력하다. “주중에 통번역일을 하고 토요일에는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는 달성군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교실 등을 홍보, 안내하고 관공서, 은행 등 일상생활, 부부나 가족 간의 서툰 언어소통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이해가 필요할 때 통번역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어려움 해결을 돕고 있다.



주말에는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이기도 하다. 국고보조로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고 졸업을 하면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말에는 시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공부에 매진하는 중이다.

엄마의 나라가 친근한 곳으로 기억되길

그런 가운데 이번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역시 그에게 힘이 됐다. 정혜은 님도 외가친척들이 돌아가셨을 때 비용문제로 가보지 못해 마음이 늘 무거웠었다. 어느덧 초등학생이 된 두 딸 유다은, 유수연과 남편이 함께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 형제자매들, 친척들을 만났다. “다은이는 베트남어를 수연이는 베트남 노래를 좋아해요. 다은이에게 고향에서 가져온 사진 몇 장으로 베트남어와 베트남 문화를 알려주는 게 전부였어요.”

아이였던 때와는 달리 이번 여행에서 두 딸은 외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베트남 일상을 보냈다.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외가 식구들이 바나나 잎에 쌀가루와 녹두, 고기를 넣고 찌내는 반잇잔 떡을 만드는 걸 두 아이가 돕기도 했다. 다음날은 하노이 근처에 여행도 가고 오토바이를 타보기도 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아이들은 놀라기도 했다. 정혜은 님이 고등학교 때도 멀리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지라 하노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아주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이들이 엄마 나라 베트남에 대해 익숙하게 기억해내는 걸 보고 무척 뿌듯했다고 한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가보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커서 혼자서도 자유롭게 왕래하며 그런 마음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고 바랐다.

도움받은 만큼 보탬이 되고 싶어요

일과 양육, 학업까지 해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 꿈에 대해 얘기했다. “제가 10년 전, 한국에 왔을 때의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집안에 있다 보니 너무 심심했고 밖에 나가자니 주위의 낯선 풍경과 언어로 지하철조차 타기 힘들었어요. 그때 시누이가 복지관에 저를 데리고 가주었어요. 이후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한국어교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학년 큰 아이의 담임선생님도 어려워하는 수학 과목은 방과 후에 나머지 공부도 도와주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세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센터, 아이 선생님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것처럼 저 역시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주여성분들이 어려움에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베트남 언어도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커나가길 바랐다. “큰 아이는 그림 그리는데 화가, 작은 아이는 제빵사가 꿈이에요. 두 아이에게 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싶어요.”

“이곳 대구도 많은 이주여성들이 있고 다문화 가정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싶은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전문적으로 베트남어와 문화를 잘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보며 정혜은 님 역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오늘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W**

함께 어울리는 것, 다문화의 의미 전하고파

지난 9월 13일, 고양시 농협대학교 도농협동연수원에서 다문화가정 초청행사가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 다모글로벌교육문화협동조합(이하 다모)은 참석자들에게 전통춤 공연과 체험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바쁜 일정 중에 전춘화 다모 이사장을 만날 수 있었다.



전이사장의 본업은 교수다. 홍익대학교 상경학부에서 중국어, 중국문화, 지역전문가 세미나 등 주로 경영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결혼 전 연변대에 있을 때는 영문학을, 결혼 후 2009년 한국에 올 때는 어학초빙교수로 오게 되었다. “결혼 후, 사정으로 남편은 한국, 저와 딸은 중국에서 각각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는 걸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청년과 여성을 위해 재능을 나누다

그는 오늘 학교동아리 ‘공명’의 총회가 열리는 날이라고 했다. “공명은 함께 어울림이라는 뜻입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나중에 중국 혹은 일본 관련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중국을 가거나 유학을 다녀오는데 상대적으로 1년 정도밖에 안돼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처음에 한국어 못했어요. 힘든 사항도 많았어요. 언어의 장벽을 실감할 정도로요. 편견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업이외의 시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과 한국학생이 서로 소통하며 윈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는 매년 50여명씩 중국 심양의 동북대학에 유학생을 보내고 그곳에도 공명을 만들었다. 한국인에게는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중국인에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교류도 하고 또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도모한다.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한국기업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 기업 특강을 진행하기도 한다.

“청년과 여성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학교에 있기도 하고 또 동네에서는 엄마들과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는 조선족, 중국동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원춘 사건 등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저를 다문화여성이라고 분류하고요. 그때 저의 위치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선족으로서 나의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모활동은 이주여성들의 성장에 도움돼

“다문화하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말을 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다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인 중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정책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한국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등. 물론 3년 정도 미만인 분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주여성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나눠 이중언어교실과 영어교실을 열기도

했다. 엄마들이 강사로 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였다. “아이들은 배운 것을 토대로 무대에서 맘껏 공연을 하고 강사배출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배경이 다모 탄생의 배경이 되었지요.”

다모는 다(多)문화, 다양한 국가의 엄마(母)들이 힘 모아 성장한다는 뜻이다. 중국, 태국, 몽골, 미얀마, 베트남 5개국 이주여성으로 구성되었고 JP모간과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한 다문화여성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2016년 4월, 협동조합으로 탄생했다. 다모의 주요사업은 다문화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다문화 전통공연 및 전시 체험 전통놀이 문화강사 양성 및 파견 등이다. 창립 첫째 공연의뢰가 많았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 지구촌 어울림 축제, 한가위 놀이마당 등에서 전통춤 공연을 펼쳤다. 이사장은 현재 공연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주력사업은 교육이라고 말한다. 교육은 다문화 이해도를 높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공연뿐만 아니라 엄마나라 이야기, 문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다모 안에서도 서로 경험을 나누고 선배, 후배로서 조언도 해주는 등의 자조모임의 의미도 있어요.” 전이사장은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에게나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다모활동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또 구성원들이 다문화 전문예술가, 전문강사로 자신의 성장과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 **W**

글 백진영(나눔기획팀)



이슈와 현장 1

민양운 님의 생활단식 이야기

50+인생, 삶을 리셋하다

건강 하나는 타고 났다고 생각했다. 오늘 출근해서 내일 퇴근하는 연속된 생활에도 끄떡없이 견뎌내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 가난한 비영리단체 활동가와 비정규직 공장노동자였던 우리 부부는 두 살 터울 아이 둘과 생활하기 위해 새벽에 신문배달 아르바이트도 했다. 그 와중에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마다하지 않았고, 어떤 날은 한 숨도 안자고 새벽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했다. 이렇게 10년을 보내고 나니 사십 후반부터 무릎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상가에 가서 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아팠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고 그 주기가 점점 빨라졌다.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고,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생겼다.

2014년 7월, 오십을 넘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 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뻗지도 구부리지도 못했고, 움직이면 ‘악’ 소리가 나도록 고통스러웠다. 그 날도 여느 날과 변함없이 아침부터 빈틈없는 스케줄로 짝 찬 하루였다. 엉금엉금 기어서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에 갔다. 일명 뼈주사를 맞았다. 검사결과 퇴행성관절염이 일찍 왔다고 했다. 신기하게 죽도록 아팠던 무릎이 멀쩡해졌다. 그 때 엄습하던 공포라니! 이리다 중독되면 어찌지. 1주일 단위로 몇 번인가 더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지만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나는 통증이 사라지자 다시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느라 반복되는 나날을 보냈다. 바로 그 때 나는 생활단식을 만나게 되었다.

민양운 마을에서 노는 언니이자 생활단식 안내자



이전에 나는 효소단식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2007년 마을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마을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운동센터의 풀뿌리활동가들과 2주간 유럽의 돌봄공동체를 탐방하고 돌아왔다. 워낙 글로벌한 입맛 덕분에 돌아와 보니 원래도 과체중이었는데 내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다. 그 때 지금은 돌아가신 권술룡선생님이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에게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보자고 1주일 간 효소단식을 제안하였다. 산과 들에서 나는 100가지 풀로 만든 효소를 찬물에 희석해 마시는 효소단식은 일상생활 에너지를 제공해 주어서 크게 배고프지 않았다. 덕분에 꽤 몸무게를 뺐다. 그러나 단식기간의 3배 이상 진행해야 하는 복식과정에서 무너졌다. 미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뱃속에서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생활단식과의 만남

생활단식은 말 그대로 단식원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은 그대로 하면서 본단식 10일, 회복식 10일, 조절식 30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있고, 단식의 진행 단계마다 지원하는 제품이 제공되었다. 천연 효소로 장청소를 한 후 따뜻한 차(니시차와 된장차)와 현미조청으로 하루 300kcal의 생활에너지를 제공받으면서 단식이 주는 자가 면역력 강화와 감량의 효과는 그대로 얻는 단식방법이다. 미네랄이 풍부한 따끈따끈한 차를 하루 2500~3000ml 이상 마심으로써 내장의 생명온도를 높일 수 있어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생수단식이나 효소단식을 하면서 번번이 무너졌던 복식과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미네랄과 무기질이 풍부한 생채식을 제공하여 배고픔 없이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게 회복식을 마칠 수 있었다.

자기 주도적 건강법

나는 매우 원칙적으로 매뉴얼대로 단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매일 냉온샤워를 하면서 나는 혼잣말로 나에게 사과했다. ‘뱃살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의 방만했던 생활로 너를 이 지경으로 불러놓고 이제 떠나

라 하니 미안해.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별해야해. 정말 내가 이제 변할 거니까 이제 이별하자, 응?’ 거짓말 안보태고 진짜 이런 고백과 이별다짐을 매일 하다 보니 시간이 가면서 단단했던 나의 뱃살이 말랑말랑해졌고, 어느 날부터 뱃살이 쪽쪽 내려가기 시작했다. 진짜 이걸 기적이었다.

2014년 8월 단식 시작한 이후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 없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찾아왔던 수면 중 다리에 쥐나는 증세도 완전히 없어졌고, 심지어 만성 무좀도 없어졌다. 뒤꿈치 굳은살도 얇아져서 맨들맨들 해졌다. 이 모든 게 혈액순환이 안되는 게 원인이었던 것을 비로소 내 몸의 변화를 통해 알았다. 나는 작년에 완경기를 맞았고 생활단식 덕분에 큰 변화없이, 갱년기 클리닉 이런 거 도움 없이 내 몸 스스로 자연스럽게 오십 중반시절을 넘어가고 있다.

몸은 삶의 이력서다. 몸은 내 삶의 가치와 사상을 담은 집이다. 잘 돌보고 손질하여 고쳐 쓰지 않고 방치해 두면 흉가로 변한다. 지나치게 지식위주 교육으로 몸에 관한 교육,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와 건강의 연관에 관한 성찰의 시간이 거의 없었다. 거기에 식품산업은 혀 감각만 자극하는 화학첨가물 범벅 맛으로 인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단식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 내가 나에게 가한 폭력을 반성한다. 아무 거나 먹고, 아무 때나 먹고, 스트레스로 먹고 등등. 내 몸이지만 나는 얼마나 내 몸을 알고 있나? 살 찼다, 빠졌다, 예쁘다, 밍다, 키가 크다, 작다 등 겉으로 드러난 외모에 등급을 매기고 날씬한 미모를 기준으로 다양한 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단식은 몸과 마음, 관계의 절제와 조화, 균형회복이라는 건강의 기준을 만드는 지혜를 선사한다. 그리고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한다. 오늘도 나는 마을에서 노는 언니이자 생활단식 안내자로서 가볍게 한마디 권한다.

“생활단식 하실래요?” **W**

이슈와 현장 2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

한 초등학교 교사가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받자, 온오프상에서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하다'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다. <딸들에게희망을>에서도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내가 페미니즘 운동에 동참하는 이유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작가, 방송인

1) 2030 그녀들이 페미니즘을 읽는 까닭,
2017-09-28 조선일보



“교보문고의 여성학 서적 판매량 중 10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신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은 128.6%, 2016년은 321.7%, 올해 1-9월은 529.8%다.”¹⁾

위 기사만 보면 지금이 마치 페미니즘의 부흥기처럼 여겨진다.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 페미니즘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건 역설적으로 여성의 삶이 그전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니 말이다. 실제로 남성들은 된장녀, 김치녀, 맘충 등 여성을 비하하는 말들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여자도 군대에 가라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여기 동참한 남자가 자그마치 10만에 육박한다. 비단 인터넷에서만 이러는 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보듯 그 중 일부는 목숨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 중 일부는 ‘메갈리아’라는, 좀 더 센 페미니즘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남성이 여성에게 했던 혐오의 말들을 남성에게 돌려줌으로써 혐오의 대상이 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남성들이 아니었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는 대신, 남성들은 여성들의 입을 봉하게 하려고 총궐기했다. 팩트와 논리의 부족함을 남성들은 다음과 같이 만회했는데, 첫 번째가 ‘때로 덤비기’였고, 두 번째는 ‘쌍욕 등 험한 말하기’였으며, 그도 안되면 살해협박을 하는 식이었다. 남성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살해협박을 받은 갓건배의 사례는 여성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으리라. 여성의 편에 서서 같이 목소리를 내줄 남성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남성에게 쌍욕이나 죽이겠다는 협박하기 쉽지 않은데다, 남성의 참여는 여성들로 하여금 모든 남성이 그러는 건 아니라는 희망을 품게 해주기도 하니까 말이다.

이것이 내가 여혐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이유다. 물론 많은 남성들이 거친 언사로 날 비난하며 배신자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보여주고 있지만, 옳은 일을 하는데 이 정도 불이익이야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 보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여혐이 미친 짓이라는 걸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성평등교육이 인권교육이다

남혜연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요새 온오프상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자칫 찬반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이 논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빚어진 갈등인 만큼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학교에서 페미니즘적 관점의 성평등 교육을 한 것이 과연 학습권과 교육권을 위배한 것인가’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이다. 페미니즘은 아이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페미니즘적 성평등교육은 인권교육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학생들은 그 어떤 사상이나 통념도 다양한 관점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관점을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교사 역시 학생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사상을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주어진 학습권과 교육권이다.

하지만 현재의 갈등은 자신들의 주장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권의 유래를 보면 1978년 프랑스혁명에서 돈을 가진 시민계급의 정치 사회적 계산에서 시작되었으나 어쨌든 시민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인권은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포장되었으며, 이는 성평등한 정치사회적 참여로 확장할 수 있었고 이는 성정체성으로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의 성교육은 존재로서의 성정체성에 대한 것은 빠진 채 여전히 생물학적으로나 젠더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화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과 성적에 반영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요식적인 연례행사 같은 교육이라는 점이다. 이런 표준화 공정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은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소통을 어려워하며, 여성혐오나 남성혐오 현상 등의 사건사고들로 더욱 대립하고 있어 씁쓸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모두 타고난 정체성이 다 다르다. 더욱이 성정체성은 자신의 표현이며, 내가 관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성은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도구이며 그 관계 최소 단위는 ‘나’다. 그런 내가 너를 만나고 우리의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은 물론이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교육이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성평등 교육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권교육의 시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이념이나 이익을 우선할 수 없음을 간과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W**

직원들에게 집 마련해주고 싶은 사장님



큐비엠은 미래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리는 ‘해양심층수’ 천연미네랄 전문기업이다. 장유경 큐비엠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2016년 12월부터 한국여성재단의 양육미혼모지원을 위한 일터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천연미네랄의 매력에 빠진 장유경 대표를 지난 9월20일 청계산 근처 회사에서 만났다.

지난 창립기념 후원의밤에 비누세트를, 100인 기부 릴레이에는 액상 미네랄을 후원하며 여성재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여성재단과의 첫 만남 어땠나요?

큐비엠은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천연 미네랄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큐비엠 제품은 깊이 1500m 울릉도 해양심층수에

서 채취한 미네랄로 만들어져요. 미네랄은 액상 상태일 때 가장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생수라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미네랄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미네랄 부족에 대한 실태가 보고된 적이 있었어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 토지에 미네랄이 거의 없다는 보고였어요. 미네랄은 집중력 강화, 피로감 회복 등 요즘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이숙진 차관님이 상임이사로 있을 때 여성재단을 알게 되었어요. 여성단체들이 어려우니 뭔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홈페이지도 살펴보고 직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기부를 결정하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에 저금통을 놓고 모아둔 것으로 기부를 시작했어요.

여성기업인으로서 고충과 장점이 있다면

여성기업인으로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또한 기성세대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고 일가정 양육문제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어서 기업인이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공감대가 넓다고 할까요. 언제부터인가 직원들의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은 집 걱정이 많고 집을 사기 위해 청춘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런 청춘에겐 미래가 없을 겁니다. 걱정보다는 도전하고 실패해도 보듬어주는 그런 사회가 우리 청춘들에게 필요하거든요. 미래사회는 창의력이 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기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무실 안이나 문을 보면 좌우명 같은 게 붙어있어요. 일을 할 때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문구들로 붙여놓았습니다. 임신출산을 앞둔 직원에게 충분한 휴가를 주고 회사의 복지가 특별히 한쪽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적 관점에서 남성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가 딸아이가 있는데 대화를 하다가 무지 자주 싸웁니다. 하지만 딸도 나도 서로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무 살 딸을 대할 때의 나와 회사에서 직원을 대할 때의 내가 차이가 있더라구요. 나는 직원들을 대화하고 그들 자신의 변화와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데 말이죠. 그렇듯 딸도 믿습니다.

매월 직원들과 함께 양육미혼모사업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양육미혼모를 돕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는?

제가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는 성이 다르므로 인해서 차별이 생기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혼모를 지원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사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대학을 가자마자 스무 살에 결혼을 했어요.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다가 궁금하던 차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쌍둥이만 남겨둔 채 남편은 떠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물다섯 살 우리도 필요한 걸 장만해 줄 수 있는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어요. 여덟 명 정도 모이는 친구들인데 두 달에 한 번 방한 칸에 살고 있는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바깥에서 만나면 돈만 쓰니까 너 네 집에서 만나 놀자고 그 친구를 안심시켰죠. 그 친구 집에 갈 때 필요한 걸 많이 사갔어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냈어요. 그 친구도 처음엔 꺼려했지만 친구들이 한번 모이면 가르르 옷거나 욕도 없이 우리가 대신 해주고 마음이 편해 질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장 대표는 일터나눔 말고도 올해 100인 기부 릴레이 때 이꿈이와 주자로서 개인기부도 시작했다. 여성은 가족의 일원이자 사회의 일원인 만큼 <한국여성재단>의 품이 더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후원가입 메시지를 남겼다. 직원들 집사주고 싶은 사장님.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면 좋겠다. **W**

취재 백진영(나눔기획팀)

이주분야, 더 나은 인권상담을 위하여



2000년 창립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교육과 상담, 지지와 지원을 하는 단체이다. 센터는 2017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통해 <이주분야 젠더 폭력 가해자 상담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정 교육팀장을 만났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소개해주세요.

충북, 부산, 전남, 전북, 대구, 경남에 각각 지부가 있고 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상담을 통해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분야의 인권활동은 처음 시도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나간다고 할까요.

새로운 분야의 일들은 어떤 것인가요?

2000년부터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많은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인이 되어야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실, 김치 담그기 등이 그렇습니다. 센터도 이주여성들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어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국어교실이 아니라 인권의 눈으로 보는 한국어라는 교재로 진행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인권이 뭔지를 함께 배우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 각 나라의 언어로 만든 이주여성 긴급노트, 위기 대응 노트 등 번역하고 배포했습니다. 5~10년차 접어든 이주여성들은 이제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어요.

이주여성 인권피해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상담자, 외국인내담자, 그리고 외국인 통번역가 세 명이 참여합니다. 통번역은 상담자와 내담자를 연결해주는 보조 위치였어요. <변방에서 주체로>는 이주여성 당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단순 보조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고 이들의 역량을 성장시켜서 한국인상담자 없이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내담자와도 더욱 긴밀하게 되고 자국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한국의 법률지원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주분야 젠더폭력 가해자 상담활동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기>는 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도 이주분야 상담원들이 만나게 되는 내담자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권지원단 교육, 가정폭력전문상담교육, 성폭력상담원교육을 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가 왜 생겨났는지 시대적인 흐름 등 큰 틀에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어 라고 묻지 않게 되지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이해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담원들은 가해자들도 상담하게 됩니다. 이주여성을 폭행한 남성은 이주남성이기도 하고 한국남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담원들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원끼리 상담사례도 공유하고 현재 상담하고 있는 현장의

상담원의 얘기를 듣고 가해자 직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이주분야 상담의 다양한 영역을 훈련하고 있어요. 피해자 상담을 하다가 성폭력 가해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 차이로 본인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의 성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모국에 있을 때도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현장에서 상담하는 분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위해 현장의 상담원, 연구자, 학자,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이 종합적으로 담기게 될 거 같아요. 어려운 작업인데 꼭 필요한 일이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마침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주민에 대한 인권지원도 낮지만 다문화를 보는 한국인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주여성들과 아이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키거나 다문화라고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 한국인들에게 다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관점 즉 다문화감수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가 초기에 남편 대상으로 아내나라 언어배우기 등을 했던 것처럼요.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출산 후 미역국만 먹어야했던 옷핀 일들도 흔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외국인혐오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2012년에 오원춘에 의한 성폭행 및 살인사건은 언론이 이주노동자와 조선족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외국인혐오현상으로까지 번졌고 최근 영화 <청년경찰>에서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혐오현상을 불러일으키고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현장에서 인권상담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원활해지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많은 상담활동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길 바랍니다. **W**

글 백진영(나눔기획팀)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현지프로그램 진행**

하나금융그룹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2017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가 지난 9월 1일~10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되었다. 선정된 18가족 66명은 6박 7일간 친정을 방문하고 친정가족들과의 오찬, 문화 체험, 부모-자녀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오찬행사에서는 가족들을 비롯하여 한-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함정환 공사, 캄보디아 내무부 Chou Buen Eng, Sun Au Ruan 차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하모니프로젝트
국죽/드림업프로그램 진행**

이씨엠디 임직원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멘토-멘티가 되어 함께 활동하는 하모니프로젝트가 5월에는 아쿠아리움과 롯데민속박물관 체험을 해보는 드림업프로그램을, 6월에는 중국 전통음식 '완자'를 만드는 국죽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신들의 미래 꿈과 비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엄마문화를 즐겁게 접하고 경험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하모니프로젝트는 오는 10월, 제2회 국죽프로그램 진행을 앞두고 있다.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현지프로그램 진행**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이 지난 8월 19일(토)~27일(일), 7박9일 간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는 총 42가정, 총 152명이 베트남 외가를 방문하였으며, 참가가정들에게는 7박9일 간 외가방문을 통한 외가족과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위한 오찬 행사 및 가족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자녀-부모 및 가족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본 사업을 통해 한국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 총 326가정, 총 1,194명이 외가를 방문하였다.

**봄빛기금장학사업
하반기 장학생 선발**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에 2017년 하반기 장학생 5명이 선정되었다. 본 장학사업은 장학생의 향후 수학계획과 학업을 통한 사회 기여도를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최종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장학생에게는 선정부터 졸업 시 까지 연간 1인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2012년 시작된 본 장학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3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학교는 희망입니다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모금함 오픈

한국여성재단은 10월 20일부터 90일간 해피빈을 통해 '고사리손모금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좀 더 나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의 기부금에 어른의 기부금을 매칭하는 'Child to Child'로 함께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가진다. 모금액은 빈곤과 내전 등으로 학교 등교가 어려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12월까지이며 지원국 및 대상 선정 심사를 시작으로 최종 결정된 국가 및 지역 아이들의 학비와 교육시설 등 현지 상황에 맞게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방법 : 한국여성재단홈페이지
해피빈<학교는 희망입니다>



미래포럼, 라이프디자인 2기 교육 개최

미래포럼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파주 지지향에서 "100세 시대, 잠시 멈추어 내 삶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라이프디자인 2기 교육을 개최했다. 라이프디자인교육은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장수시대에 대한 불안을 넘어 삶의 본질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포럼 법인 회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미래포럼 법인회원(라이나전성기재단, 매일유업, 샘표식품, 유니베라, 유한킴벌리, 풀무원) 임직원 30여명이 참가했다. 교육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노후준비를 위한 인식전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질의응답 및 생애설계워크숍도 진행되었다.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 Mom-up project 홈퍼니싱워크숍 개최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 Mom-up project(후원 이케아코리아) 참가가정이 선발되었다.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29가정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가정에게는 주거환경(공부방) 개선, 자조모임 참여, 홈퍼니싱 워크숍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1일과 29일 서울권과 경기권에서 진행된 홈퍼니싱워크숍은 양육미혼모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와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주거환경(공부방) 개선을 위한 홈퍼니싱 솔루션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기부자명단 2017년 7월~9월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감미주 감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혜 강연조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진 강은진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재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태리 강현선 강현욱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순 강효선 강희숙 경창수 고경표 고명희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선 고제현 고주형 고지원 고진희 고현철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태숙 박숙희 광영선 광옥공 광은숙 광지영 광지혜 광현미 광혜경 광희환 규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용 구준자 구현정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경우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민영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영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은 권은수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희 권택건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기수연 길기호 길준상 기가는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성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민 김광수 김광재 김광하 김군태 김규식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다영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식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민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혜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민진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기 김상분 김상숙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식 김선혜 김선화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철 김성태 김성한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곤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애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연정 김열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룡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진 김영연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관 김용남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관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진 김유향 김윤경 김윤모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자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규 김은미 김은상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익희 김이경 김이례 김이슬 김익자 김인섭 김인수 김인순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정 김인지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현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미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인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중덕 김중산 김중순 김중주 김주연 김주영 김주환 김주희 김준수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옥 김진원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청희 김춘지 김춘희 김차범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복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길현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진숙 남현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드림월드투어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애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는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명숙 문명옥 문보경 문새미 문선우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익성)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용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정호 문진석 문태희 문희영 미래포럼 민기영 민들레누비 민우숙 민영숙 민옥기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기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문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연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분순 박사용 박삼순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미 박성은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애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심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순 박용호 박우영 박은순 박은영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옥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영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정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효 박 진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희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재복 박재용 박준순 박태병 박태숙 박현 박현미 박현숙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홍희 박희옥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선혜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욱 배진숙 배철용 배현영 백경자 백경훈 백기덕 백영민 백부서 백선숙 백선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용태 변정섭 변정숙 변형숙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진 석용원 선미영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지에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화 성영중 성수현 성정현 성형주 세브란스치과의원 소속녀 소희모자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갑구 손연숙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송기옥 송기원 송다영 송두호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섭 송상희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용원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송수정 송경아 송동민 송동식 송동원 송동철 송성순 송명태 송미란 송민수 송봉균 송봉남 송봉철 송상철 송성태 송소영 송영미 송영희 송이나 신에서 신유선 신유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애 신종은 신지영 신지연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선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심효연

안경모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도연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희 안세준 안소연 안순화 안순용 안은숙 안은성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중희 안준호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우 양이숙 양인승 양재섭 양중화 양진숙 양태경 양현식 양한자 양현정 양후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선애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엄미숙 엄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엄미화 엄인숙 예은숙 오기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상병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운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경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중휘 오지섭 오춘희 오혜린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우대석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영희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예봄 원용걸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계희 유경희 유나연 유난희 유명종
유무선 유미순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수진 유숙자 유승란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일영 유재경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혜미 유혜분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한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계원 윤말미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정 윤성희 윤세정
윤 속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진호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열
윤홍준 은재원 음충성 이기영 이기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광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례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경 이리화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병미 이보라 이보희 이복순 이봉찬 이상근 이상덕
이상민 이상렬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형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상광 이상우 이상원
이상은 이상일 이상자 이상현 이상호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수익 이수진 이수향 이수미 이수오
이순자 이순현 이순희 이승수 이승희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연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림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철 이우혜 이원대 이원식 이원영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유경 이유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 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은우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민 이재준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수 이정숙 이정자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재구 이홍순 이홍용 이홍운 이홍홍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호 이따라 이필영 이하린 이하영 이한돌 이한용
이해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홍재 이회영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홍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인포뱅크
(#0038문자후원) 임경숙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덕희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은옥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정화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희숙

장경숙 장경월 장근찬 장길용 장덕현 장동애
장명연 장봉근 장봉화 장석만 장소원 장소현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순희 장승택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옥형 장유경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미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혜경 장혜채 장현진 장혜영
장혜자 장희숙 장희연 장희연 전남미 전대근 전우영
전미경 전미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우용 전원수
전유미 전은구 전은서 전지에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미 정강자 정경란 정경숙 정경옥 정경진
정구선 정근하 정길식 정길심 정다정 정도근 정동환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남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운 정승희 정아현
정연숙 정영숙 정영연 정유진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원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현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주리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숙 정창근 정창남 정창수 정청자 정태로
정하선 정 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희지 제명신 제송옥
조경미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누리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선훈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승희 조아라 조아진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일 조영한 조영혜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은 조주현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학진 조한중 조항례
조혁중 조현주 조 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홍식 주경은 주미영 주선숙 주영 주혜숙
주혜은 주혜영 주혜정 지상구 지숙자 진민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승현 차연희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해영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재자 천병식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길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명진 최은영

최미애 최민호 최병옥 최병희 최보솜 최세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성남 최성애 최성철 최승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창호 최영산
최영옥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경 최은숙(미즈필치과)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아 최인희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 진
최진희 최태진 최희재 최현수 최현주 최현호 최희미
최형숙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화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커뮤니케이션살림꾸림 큐비엠

탁성희

편민자 포스트리지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만호 하미선 하순원 하영선 하은숙
하지은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국자기이완협회
한명희 한문철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상선
한송이 한숙자 한승미 한애자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재수 한정연 한정옥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홍화 한태희 한혜경 한혜준 해피빈(공기부)
허명지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 선 허선아 허은정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신화 허유정 허유진 허은정
허윤희 허은실 허혜영 현준식 호성투어 흥극택 흥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수 홍석보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순용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애진
홍용희 홍은숙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희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미영 황미향
황병덕 황서영 황식민 황선근 황성철 황숙희 황은주
황은진 황인선 황인희 황정혜 황주연 황주희 황진택
황훈영 희망응상

이름이 누락되신 기부자님은
나눔기획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부자명단 관련 문의
나눔기획팀 02-336-6463

수입 Income

항목	내용	금액(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85,213,938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239,446,181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85,666,50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30,535,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145,811,115
총수입		2,214,672,734



- 기업지정기부금 76.1%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8%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3.9%
- 특정명의기금 1.3%
- 운영후원금 1.4%
- 기타수입 6.5%

지출 Expense

구분	항목	내용	금액(원)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19,576,414
고유 목적 사업비	배분사업비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2.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 하나금융) · 봄빛장학금(봄빛기금) · 하모니프로젝트(ECMD) · 양육미혼모 통합 헬스케어(칼막스재단) · 양육미혼모 건강개선사업(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이코리아)	1,145,014,274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긴호흡(교보생명) ·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4. 사회적돌봄사업 · 안전안심마을만들기(교육희망상환기금)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1,997,501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74,185,040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3,594,769
총지출			1,484,367,998



- 모금사업비 1.3%
- 배분사업비 77.1%
- 홍보사업비 1.5%
- 경상비 18.5%
- 시설비 1.6%

나눔과 평등을 꿈꾸며

2017
한국여성재단
후원의 밤

다들 드디어
노의 밤을

W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한국여성재단은 열여덟 생일을 맞았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 발전하는 사회를 위한
당신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힘차게 펼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기다립니다.
11월 30일, 당신과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2017년 가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해경

이사 김효선 문미란 박경수 박옥희 신창재 이경순 이광희 이수형 이철순 장필화 조홍식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프로그램

1부(오후 6시 30분~7시) 감사와 나눔
2부(오후 7시~8시) 만찬과 공연

장소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B홀

생명보험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황제펭귄의 허들링 이야기를 아시나요?
매서운 남극의 추위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안쪽 펭귄과 바깥쪽 펭귄들이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합니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생명보험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